

연변, 농업경제 1분기 '좋은 출발' 위해 힘차게 달린다

봄같이 준비로 안정적 생산·공급 확보 대상건설 속도·효율 높여

올해 들어 연변은 농업경제 1분기 '좋은 출발'을 목표로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생산을 보장하고 맞춤형 정책으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동력을 키움으로써 1분기 농업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훈춘시농업농촌국은 농자재 제품에 대한 특별 점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봄같이 생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집법인원들은 여러 농자재 판매점을 방문해 자격 심사, QR 코드 추적, 표본 채취 검사 등의 방식으로 제품 원산지, 라벨 표기, 가격 공개 상황을 엄격히 점검했다. 아울러 농자재 판매업체들에 제품 품질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영업 정신을 유지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봄철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조달과 비축을 신속히 진행하여 물자 보유량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독려함으로써 봄철 생산을 최대한 보장했다.

2월부터 연변은 종자, 화학비료, 농약 등 봄농사 준비용 농자재 공급 및 보급 사업에 전력을 다해왔다. 현재 전 주에 봄농사 준비 자금 17억 6,000만 원이 조달되었으며 종자와 화학비료의 농가 보급률은 각각 80.88%, 68.87%에 달하는데 4월말까지 전부 보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전 주 봄철 농기계 수리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화룡시 룡성진 합심촌에서는 연변주농기계관리기술보소 소장 양장봉이 촌민 최영의 파종기 점검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는 "이 암륜 각도를 5도 더 낮추면 흙 덮기 효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변주농업농촌국 관계자는 3월 24일까지 전 주적으로 이미 농기계 10만 1,100대(세트)를 점검, 수리해 총작업량의 53.13%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닐수거 핵심 과제와 관련해 현재 98% 이상 완료되었으며 4월 25일 전으로 수거작업을 전부 마무리할



대형 비닐포장기가 들판을 오가며 우렁차게 작동하고 있다. /연변주농업농촌국 제공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왕청현 동광진 목단촌 산업진흥기에 들어서면 세줄로 늘어선 철제 선반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위에 놓인 나무상자들 속 푸르른 잎사귀 사이로 인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2019년, 목이버섯 폐균주머니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폐균주머니를 유기비료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연변대학과 연변농업과학연구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목이버섯 폐균주머니를 리용한 인삼 재배 전용 기질(基質) 제조'라는 인삼 재배 신기술을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왕청현농업농촌국 주촌 연락원 정금량은 이 기술은 목이버섯 폐균주머니 처리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인삼 재배의 새로운 방식을 개척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전용 기질을 리용한 인삼 재배는 연

변의 '안정적 생산, 공급 보장' 전략의 한계 축소판이다. 2월 이후 연변은 대학 및 연구기관을 조직해 목이버섯 균포 공장과 대규모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해 균포 완성품 비율을 향상하고 오염률을 낮추었다. 또한 김림성의 소 도축 업체 증산, 증량 보상 정책을 락착해 보상 조건에 부합하는 주내 소 도축 업체들이 도축량 증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 질병 방역을 견실히 수행해 가축 생산량 증대를 뒤받침했으며 양식 어류의 월동기 안전 관리를 강화해 어류(산개구리)의 안전한 월동을 확보함으로써 올해 수산물 생산량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상하이정정보과학(그룹) 유한회사가 2억 원을 투자하여 둔화경제개발구 장백산록색식품산업단지 건설중인 선식옥수수 가공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작업자

들은 통풍관 제작 및 바닥 타일 마감 작업에 바쁘다.

"선식옥수수 가공 대상은 2024년 산업단지에 입주, 주로 선식옥수수 및 옥수수 알갱이 전자동 생산라인을 건설할 예정이다. 올해 4월말에서 5월 초에 생산에 들어갈 계획인데 연간 5,000만 개의 옥수수를 생산하여 생산액 1억 원, 세금 500만 원을 달성할 전망이다."라고 대상 책임자 서조봉은 설명했다.

연변 농업 분야의 봄철 개시 및 재개 프로젝트 30개 중 둔화 육계사육장 확장, 왕청 선식옥수수 심층가공 등 4개의 산업 융합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변에서는 '시작이 곧 끝'이라는 각오로 프로젝트 건설의 '시공도'를 농업경제 고품질 발전의 '실제 모습'으로 전환하며 1분기 '좋은 출발'을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 김림일보

통화시

봄철 농사준비 돕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

최근 통화시공급판매협작사는 봄철 농사생산의 핵심 시기를 놓치지 않고 '봄철 농사 보호'로 수익 증대, 씨비 서비스 하향화로 농민 걱정 해결, 집중구매 직공급으로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한 다원화된 농업봉사 체계를 구축해 봄철 농사생산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통화시공급판매협작사는 작업전 문반을 꾸리고 '집중구매 직공급 + 과학기술로 농업 지원' 씨비 체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휘남 등현(구)을 지도하여 2025년 봄철 농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농가와 전문협작사의 수요를 결합해 길림운천화(吉林云天化) 등 주도 기업과 1,000여건의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현-향-촌' 3급 련동 씨비서비스를 구축하고 현에 옥수수 고수확 시범 경작지 두곳을 정해 고수확 재배 방안을 세우고 기술 지도를 하며 집중구매 직공급으로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였다. 시공급판매협작사는 소속 농업자재 경영망에서 농업자재 비축관리 대장을 작성하도록 조직하고 분석과 연구관단을 강화했다. 대장을 대조해 각 기종 농업자재의 비로 비축량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특히 비료 동계 비축 진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봄철 농사 농업자재 공급을 완전히 보장했다. 현재까지 시스템 비료 도착량은 2만 9,000톤으로 전체 예상 공급량의 43%를 차지했다.

통화시공급판매협작사는 농업농촌

국 식물보호소와 함께 전문봉사 선전대를 형성해 대량 곡물 재배 농가와 협작사기지에 심입해 활동을 벌이며 농업생산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과학적 약품 사용, 생태적 방제, 안전한 수확' 등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병해충 과학보급 선전을 벌여 농민들의 작물 병해충 방제 의식을 높여주고 농업 특색방제 기술을 보급했다. 또한 길림농업대학의 경험 많은 교수를 초청하여 500여명의 농민과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지식 교육을 진행해 과학적 재배에 정확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농업자재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통화시 시강진 시장에 홍보점을 설치하고 집법인원들이 진짜와 가짜 비료 대조 전시, 현장 홍보 및 과학보급교육, 전단지 배포 등의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농자재 진위 식별 방법을 알려주고 비료의 과학적 사용법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여 농자재 품질에 대한 권리 보호 의식을 높였다. 이번 활동 기간 총 300여부의 홍보 자료를 배포하여 1,000여명의 농민들이 혜택을 누렸다.

아울러 통화시공급판매협작사는 사회력량을 활용해 집법인원들과 함께 시강진의 빈곤탈출 농가를 직접 방문, 봄철 농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약 1,000여원을 모아 수확기의 빈곤탈출 농가에 비료 등 '애심농업물자'를 전달했다.

/ 김림일보

신합향, 특색산업으로 농민 치부의 길 개척

안도현의 광활한 향촌에서 보기에 평범한 '특산물'이 현대농업 발전의 기치가 되어 농민들의 치부의 길을 개척해주고 있다.

최근년간 신합향은 자연조건과 자원 우세를 기반으로 학교, 기업, 정부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변대학 문화창의공간과 현지 기업의 심층 협력을 추동했다. 특히 상황버섯, 민들레 등 특색상품에 '연례' 브랜드를 붙여 '농산물 + 문화창의'라는 특별한 영업 모식을 구축하고 '당건설 + 산업으로 지명 + 문화로 에너지 부여'의 향촌 진흥의 길을 개척했다.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연변대학문화창의공간에서 전시 판매한 상황버섯음료, 상황버섯차 선물세트, 민들레버섯 선물세트, 오미자 선물세트는 18만 원어치에 달한다. 현 상황버섯산업은 신합향의 '대표 브랜드'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촌 진흥의 튼튼한 토대로 되고 있다.

2024년, 상황버섯, 민들레, 목이버섯 등 특색산업은 근제 10여개 촌 집체협작사를 견인하고 2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인당 연간 8,000원 이상 증수했다.

/ 김림일보

송강하촌, 저장창고 신축으로 촌민들 60만원 증수

지난해이래 둔화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향촌 산업 발전의 중요한 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강유력한 감독으로 촌민들이 '시급해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해결을 바라는' 문제 추동중 따푸차이허진 송강하촌에 한채의 고구마 창고를 신축해주는 것으로 촌민의 소득 증대에 효과적으로 조력했다.

3월 20일, 따푸차이허진 송강하촌당지부 서기 왕덕민은 "둔화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의 지지 덕분에 창고를 건설하여 전 촌 30여만키로그램 고구마의 겨울철 저장과 운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고구마산업을 통해 촌민들은 60여만원의 소득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강하촌에는 현재 300여가구, 800여명의 촌민이 있는데 최근년간 촌당지부는 당지의 자원 실재와 결부하여 집체경제를 장대시키는 가운데서 부단히 새로운 길을 탐색했다. 2021년, 송강하촌은 당지부가 인솔하여 협작사를 꾸리고 촌민들이 자원으로 주시에 가입하여 배당받는 형식을 통해 촌집체에서 재배하는 50무의 경작지를 300여무로 확대했다. 2024년, 송강하촌에서 재배한 300무의 고구마는 풍작을 거뒀는데 무당 1,750키로그램에서 2,000키로그램을 수확하고 총생산량은 50여만키로그램에 달했다.

고구마 농사가 풍작을 거두면서 촌민들은 기뻐하면서도 근심도 없지

/ 본지종합

사과배로 '부흥의 꿈' 키워가

최근 연변대학 농학원 조려교수는 연구팀을 이끌고 룡정시 광신촌 김림 룡정사과배과학기술원을 찾았다. 봄철은 과수 가지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조려교수는 연구팀과 함께 각 지역 과수원을 방문해 농가들에 가지치기 기술을 지도했다.

"현장의 과수 농가들은 기술이 절실합니다." 최근 몇년간 연변대학 농학원은 물과 비료의 효율적 리용 기술 연구를 통해 비료주기 기술을 최적화했다. 농학원에서는 주요 해충 방제 기술 연구를 진행해 해충 발생 규칙을 규명했으며 '휴면기 정원 정리 + 개화 전 석회유황합제 살포 + 생장기 적안 벌방사'(生长期释放赤眼蜂) 등 방법으로 화학농약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또한 사과배 재배 시 '과수원 통로 잔디 심기 + 나무 밑동에 비닐 덮기' 같은 토양 비옥화 기술을 연구해 기존 관리 방식보다 과일 품질이 뚜렷이 개선되도록 했다.

연변화룡집단유한회사는 룡정에 만무 과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60년 이상 된 사과배나무들이 약 20여키로메타에 걸쳐 밀집해있으며 총면적은 1,499헥타르에 달한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표준화된 사과배 생산기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화룡집단유한회사는 사과배 생산에서 비용 대비 수익률 저하, 포장 및 저장, 운반 문제 등 발전의 병목 현상을 겪었다. 향촌 진흥은 특색산업의 발전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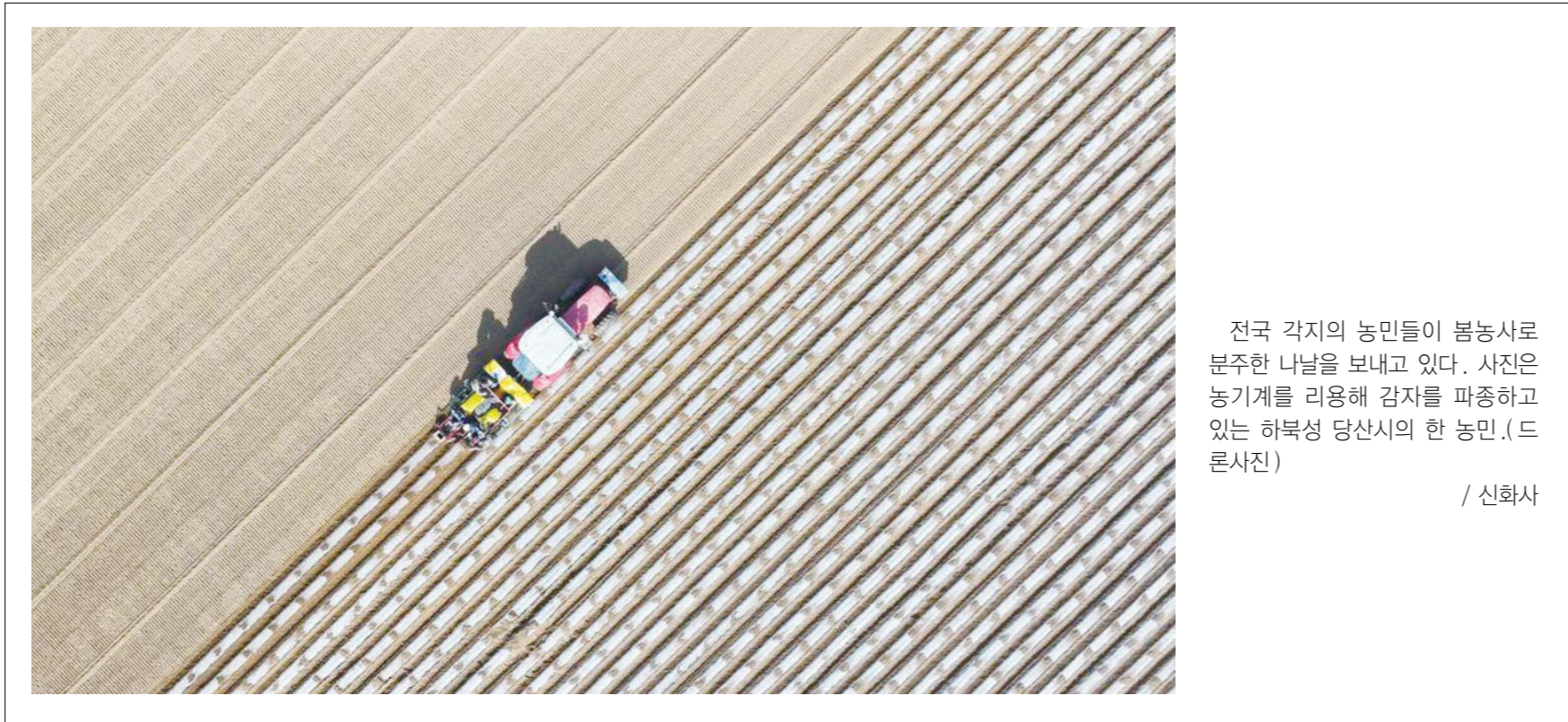
는 실현될 수 없다. 연변의 관광 열기는 사과배 인기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사과배 생산의 친환경성, 비용 절감, 고품질, 고효율 목표를 달성하고 대학과 기업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연변대학 농학원, 룡정시과학기술국, 룡정시과학기술협회, 연변화룡집단유한회사에서는 공동으로 김림 룡정사과배과학기술원을 설립했다.

2024년 연변에서는 약 4,000헥타르에 달하는 사과배 과수원에서 풍성한 수확을 올렸으며 수확된 사과배가 완판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조려교수는 "사과배의 인기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생산관리 최적화 덕분"이라며 "과학기술원은 '비료와

농약 사용 줄이기' 기술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농가들은 기존 방식 대비 비료 사용량을 50% 이상, 농약 사용량을 약 30% 줄일 수 있었고 이는 또 생산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가들에서 새 기술을 더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은 수시로 신기술 시범 및 기술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과수 수분 과정에서는 현대적 장비 리용한 액체 수분 기술로 기존 수분 방식을 혁신하고 과수 생산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 노동력 절감과 착과율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켰다.

/ 김림일보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봄농사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농기계를 리용해 감자를 파종하고 있는 하북성 당산시의 한 농민.(드론사진)

/ 신화사